

기계산업 상시 지원 체계 구축

전북도, 엔지니어링설계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최적화 설계·해석 기업지원·애로기술지원단 운영

전북도는 전북지역 기계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설계·엔지니어링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력·비용 애로 지원 해결을 목적으로 '중소기계산업 엔지니어링설계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인 (재)전북테크노파크(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서는 전북 도내 기계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전문기술(설계/해석) 기업지원 수혜기업 및 컨설팅 수행 전문 기업(기관)을 모집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제조기술 흐름 변화에 따라 표준화, 단순 가공·조립에서 기획, R&D, 제품설계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전북 지역 제조업체의 엔지니어링 설계 지

원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 도모를 위해 제품설계와 출사,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 등 현장 수요 맞춤형 엔지니어링 설계/해석 전문기술 서비스 지원으로 제품 성능 개선과 신제품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상 기업에게 △설계지원(제품생산, 제품개발을 위한역설계 및 설계) 및 △해석지원(시제품 개발, 제품 성능개선 및 신뢰성 향상)을 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각각의 수혜기업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 전북테크노파크와 컨설팅 수행 전문기업(기관)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기업(본사,

지사,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단, 지역영업소 제외)으로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평가 및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대면평가를 통해 수혜 및 수행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5월 21일 오후 4시까지 오프라인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 사업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재 전북테크노파크장은 "엔지니어링 설계기반의 전문기술 기업 지원을 통해 전북지역 기계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또 관계자는 "도내 중소기업 기업들에게 엔지니어링 설계기술 기반의 제품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 기업들이 신속한 제품 성능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성지를 견학했다.

“전북 도민의 소중한 인권,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전북 도민인권 지킴이단, 독립운동 성지서 의욕 고취

독립기념관·유관순열사기념관 탐방하며 인권의식 공감

전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성지를 견학하고, 독립운동과 인권운동의 연관성을 재조명하여 전라북도의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 150명은 지난 28일,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유관순열사기념관 및 독립기념관을 참관했다.

이날 오전, 지킴이단은 먼저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하여 유관순열사 추모각을 참배한 후, 기념관을 둘러 보았으며 함께 동행한 해설사로부터

유관순열사의 생애,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열사의 삶과 죽음이야기 등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유관순 열사의 순국 제99주기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애국선열의 자주독립 의지를 고취하고, 애국정신을 배우는 전시물 관람, 독립기념관의 상징인 겨례의 집 방문, 태극기 한마당 체험 등 인권문화체험을 가졌으며, 일제강점기의 국난 극복사와 각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등을 시기별로 전시해 놓은 6개 전시관을 전문해설사의 안내로 탐방했다.

이날 인권현장 견학에 참여한 전북도민인권지킴이단은 "3.1운동은 자주독

립의 금지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인권운동의 상징이다"며 "민족혼을 중심으로 지킴이단들이 하나로 뭉쳐 우리들의 뿌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지킴이단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전북 도민 인권지킴이단 인권현장 견학을 주최한 영경영 인권담당관은 "유관순 열사기념관과 독립기념관 견학을 통해 인권지킴이로서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북 도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은 지킴이단 인권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내실있는 현장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가 지난 26일 소셜캠퍼스온전북에서 201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18개 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전북도, 첫걸음 내딛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서 전달

전북도는 지난 26일 소셜캠퍼스온전북에서 201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18개 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공모를 통해 신청한 기업에 대해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인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및 시군과 함께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소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업 대표 대면심사와 서류심사를 마친 후 최종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사회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들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마련하고, 올해에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어 작년 상반기에 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증가율이 192%로 대폭 증대되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한 7개에서 18개로 증가했다.

지정서를 전달한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 대표들에게 "도내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사명감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기

업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대표들은 "예비사회적 기업에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3년간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신규 지정 18개를 포함 예비사회적기업이 90개, 인증 사회적기업이 128개, 총 218개가 운영되고 있고,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오는 7월에 공모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 '집중'

전북도, 일자리 추진상황 점검회의 열어 5대 전략 추진 논의

전북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이원택 정무부지사 주재로 '2019년 일자리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 실행과제 진행사항과 점검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올해 7,199억원을 투자하여 4만 8,883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게 도가 중점 추진할 5대 전략, 17개 핵심과제, 77개 실행과제를 마련하고 올해 초부터 집중 추진·관리해 가고 있다. 도에 따르면 1분기

일자리 창출실적은 총 29,410명으로 목표 48,833명 대비 60.2%를 달성했다.

1분기 주요 성과로는 산발 및 산발병해충 관련 인원선발 배치 1,453명, 노인돌봄 기본·종합 서비스사업 2,067명, 성장동력산업 중심 핵심기업 유치 1,119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920명 등 총 2만9,410명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실행과제는 도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주요분야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담긴 만큼, 실행과제에 맞춰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상시 점검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실행과제에 보완하고 매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일자리 창출동력이 끊이지 않고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현재 93만명대인 취업자수는 약 98만명대에 육박하고 현재 59%대에 머문 고용률도 62%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북도는 일자리 실행과제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일자리 창출기반을 다진 점을 높이 평가받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일자리 통시제 평가에서 지난 2017년 대상, 2018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